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1사무 3,3L-10,19

**화답송** | 시편 40(39),2ㄱ과 4ㄱL,7-8ㄱL,8ㄷ-9,10(◎ 8L과 9ㄱ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거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6,13ㄷ-15ㄱ,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1,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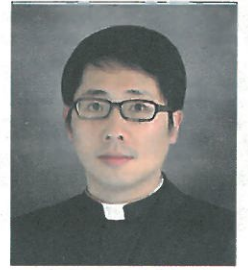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 요한 1,35-42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신부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신자들의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께 배웠던 모범답안에 따르면 ‘기도란 하느님과 대화입니다. 먼저 우리의 대화를 떠올려봅시다. 대화란 듣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남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거나 성급히 판단해 본래 뜻을 왜곡한다면, 의사소통은 오해를 낳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과 대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면, 기도라는 이름의 배는 ‘분심’의 풍랑 속에 빠져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제1독서(1사무 3,3ㄴ-10,19)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익숙하지 않던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 “저를 부르셨지요?”라고 묻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자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눈치챈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제야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그분과의 대화, 곧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배웁니다.

복음(요한 1,35-42)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묵었던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인데, 안드레아는 형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아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그분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 등장인물(세례자 요한, 그의 두 제자, 베드로)이 각각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말한 것을 들으며, 듣고 본 것을 다른 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내용을 또 다른 이가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올바르게 듣는 것과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냅두리하거나 소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말을 많이 해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임을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도 배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느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충분히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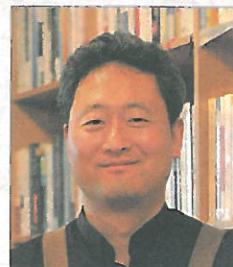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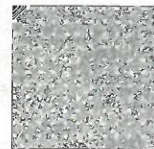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요한 1,36)

맨발의 수도사가 절벽 위에 선 채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무거운 번민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쉬이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느님의 범주와 세상의 경계에서 고뇌합니다. 오늘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 | 와서 보아라

2017년 12월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은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혹한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식당을 열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것이 제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수도원에서 아침기도와 미사를 마치면 부랴부랴 출근하여 청소부터 시작하여 9시에 문을 닫고 수도원에 돌아오면 지쳐서 뒹아떨어지기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역시 반복되는 일과, 식당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건강엔 소홀하면서 입만 털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대가였죠.

해를 넘겨 2018년 새해를 맞아 피곤에 젖어 있을 때쯤 생활성가 가수인 알렉시우스 형제님께서 아들 예담이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청년밥상 문간' 소식을 들으시고 응원차 오셨던 것입니다. 예담이에게는 미리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던 모양입니다. 예담이는 1년 동안 소중하게 저축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서 식당에 써 달라며 기꺼이 기부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1년 동안 모은 것이니까요. 저는 정말 놀랐고 불끈 힘이 솟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운영하는 동안 내내 많은 은인들께서 도와주셨지만 예담이는 그중에서도 최연소 기부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예담이, 예담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신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선한 씨를 뿌리신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피곤 따위 날려버리고도 남을 아름다운 마음들을 마주하노라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식사하러 오신 자매님께서 계산을 하시면서 그때 식사 중이었던 모든 청년들의 음식값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자식으로 두셨을 법한 그분께 식사

하는 청년들이 모두 아들 같고 딸 같았을 겁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청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님 한 분이 여기 모든 청년들의 식사비를 치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어찌나 고마워하던지요... 어떤 청년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식사비를 내실 수 있냐며 감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으로 더 나은 기부 방법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식당이나 청년들을 위해 써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 식당에 오시어 식사도 하시고 청년들을 위해 골든벨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청년들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갈 거라 믿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청년밥상 문간'은 상당히 저렴하니까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녁에 오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곳이지요. 그래서인지 오시는 분들이 다들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  
과는 소리로 다 들어지고  
사랑은  
이웃의 얼굴로 다 들어진다

정혜윤 프란치스카 | 신수동성당

# 한국천주교회의 두 기둥 김대건·최양업 신부님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와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가톨릭 성가 291번에는 “교회의 반석 성 베드로와 선교의 주보 성 바오로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시고 승리의 관을 받으셨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교회의 두 기둥에 베드로·바오로 사도가 계시다면, 한국교회에도 두 대들보 김대건·최양업 신부님이 계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의 첫 사제로서 ‘피의 순교’로 한국교회의 제대를 축성해주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간의 사목 생활인 ‘땀의 순교’로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1821년에 태어나서 15살 소년의 나이로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신사(辛巳, 1821년 흰뱀白蛇의 해)년 3월 1일이 최양업 신부님의 생일이고, 8월 21일이 김대건 신부님의 생일이므로 동갑이지만 최양업 신부님이 조금 더 형이었겠지요.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에 의하면 이 둘은 먼 친척이 됩니다.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의 딸 이 멜라니아는 김 안드레아 신부의 조모이고 이(성례) 마리아는 이존창의 사촌 누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1851.10.15.편지)

위의 인용문 중에서 ‘가짜 사제’란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가성직제도’를 가리키는데, 이존창은 내포 지역에서 성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모두 어머니 쪽으로 ‘하느님의 종’ 이존창과 연결됩니다.

이 뜻깊은 해에 두 분 삶의 중요한 대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의 삶은 그 이름에서도 드

러납니다.

김대건(大建)은 ‘크게 세우다’는 뜻으로 첫 사제로서 선교사들의 바닷길을 개척하고 자신은 순교로 한국교회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정말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묵상할 주제는 적응, 성장통, 여행(모험), 용덕, 순교입니다.

최양업(良業)은 서품 후 국내에 들어오셔서 11년 6개월 동안을 발로 뛰며 선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목 생활 자체가 참으로 말 그대로 ‘선한 업적’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할 주제는 성실함, 배려, 열정, 성사, 최선을 다함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무엇을 세울 것이며, 어떠한 업적을 남길지 생각해 봅시다. 13개월간 사제생활을 했던 26세 청년 김대건의 마지막 소망을 되새겨봅시다.

66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  
잘 있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나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를  
특별히 돌보아 주도록 부탁하네.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감옥에서 쓴 라틴어 친필 서한 중 마지막 대목 -

99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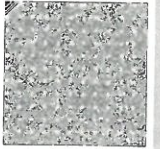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월 18일 박항영 프란치스코 신부(88세)
- 2004년 1월 23일 김정진 바오로 신부(82세)
- 2009년 1월 23일 홍인수 세례자요한 신부(67세)
- 2019년 1월 19일 장홍선 요셉 신부(81세)

서울주보 알림 신청: <http://cc.catholic.or.kr>



## 프란치스코 교황 '성 요셉의 해' 선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 선포 150주년을 맞아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를 반포하고 교서를 통해 1년을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까지)로 선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드러나진 않지만 매일 인내의 삶을 살고 공동 책임의 씨앗을 뿌리면서 희망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를 겪으면서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셉 성인이야말로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고 드러나지 않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자 구원 역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성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요셉의 해 전대사는 바티칸뉴스([www.vaticannews.va/ko](http://www.vaticannews.va/ko)) 참조>

#### ① 사랑받는 아버지 ② 온유한 아버지 ③ 순종하는 아버지

요셉은 그의 삶을 봉헌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구원의 역사에서의 그의 역할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성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껴안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온유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순종’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구했고, 이를 통해 요셉은 아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모범을 가르쳤습니다.

#### ④ 받아들이는 아버지

요셉의 영성적 삶의 길은 ‘설명하는 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 성인이 수동적 인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용기 있고 강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으로 가득한 굳셈이라는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그는 모순되고 예상할 수 없으며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 성인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 ⑤ 용감하고 창의적인 아버지

요셉은 세상의 다른 모든 가정들처럼, 특히 많은 이주민들이 겪는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의 보호자인 요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성인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⑥ 노동하는 아버지

성실한 목수 요셉은 우리에게 노동의 결실로 얻은 빵을 먹는 기쁨과 노동의 존엄 및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창조 작업에 협력합니다. 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뉴노멀(New Normal)’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젊은이도, 어떤 가정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노동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⑦ 그림자 속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요셉은 이 땅에 드리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하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알았으며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남을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참된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고 오히려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더 높은 차원의 부성으로 나아가는 표지입니다.

출처: 바티칸뉴스 | 요약정리 황중호 베드로 신부(문화홍보국 차장)

### 교구청알림

####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안치룡’

때: 매월 셋째주(화) 1월19일 오전 11시(159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화상 기념경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http://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13일(수)~2월2일(화)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인준단체 알림**

**모임**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2월19일(금)~27일(토)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홍성)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제주 현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단식 효소비 포함)  
때, 곳: 2월19일(금)~22일(월)·2월26일(금)~3월1일(월)·3월12일(금)~15일(월)·3월26일(금)~29일(월),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 지도: 토마스 모어 원장 신부  
문의: 010-9916-5798 신부, 010-9363-7784 신 글라라

**돌아보며 깨닫기 / 문의: 010-3173-2665**

돌개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최영민 신부 (예수회)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5차	1월22일(금)~30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6차	2월5일(금)~13일(토)	

**어르신 사말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추곡,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1월26일(화) 10시~13시
심판 지옥 연옥 천국·성체 성모님	매일 셋째주(화) 10시~13시

**가정선교회 2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2월3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 성모 신심미사	2월6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없음, 김밥 판매, 식수 준비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교육**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 (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신구약 성경통독(상지피정집)**

때, 곳: 2월19일~27일(8박9일) / 문의: 010-9401-937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페이지마스터자격증반)

**ICPE선교회 제자훈련 / 문의: 010-7548-6664**

대상: 대학생, 청년 / 대면 혹은 비대면  
때, 곳: 2월27일(토)~2022년 1월, ICPE선교회(합정동)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추가모집 안내 / 문의: 061)432-9241  
원서접수: 1월18일(월)~2월3일(수)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특별 이벤트**

2021년을 말씀과 함께 / 문의: 010-7470-7966  
1과목 수강료로 2과목 공부를  
상세 내용은 사이버성경학교 홈페이지 참조

**2021년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선교아카데미 제10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3월4일~9월30일 매주(목),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예수회센터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영성과 철학성당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홍경자 교수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할 것인가?	실시간 영상 강의(ZOOM) 매주(목) 14시~16시	권오연 신부
구역성경 아카데미	매주(목) 10시~12시	주원준 박사
영어성경 나눔	매주(목) 18시15분~19시15분, 19시30분~20시30분반	Kister 신부
'나'를 찾아가는 화목한 가정	첫째·셋째주 (토) 16시~18시	손엘디, 베카타라나 부부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때, 곳: 1월18일(월) 13시~14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복음화학교 월례미사**

때, 곳: 1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모집**

**2021년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38-7831  
대상: 현재 9세~12세 가톨릭(예비)신자  
연습: (화) 18시, (일) 13시 / 접수: 신청서 이메일 발송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참조  
연습재개 및 오디션 일시 개별 연락

**입니**

**꼬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쉽고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전화·온라인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심층적 자기이해와 가족관계 성장	1월26일~3월30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자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AMR 명상심리치유	대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수지메니에로그램	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치야 놀자'	개인, 가족(청소년), 소규모 팀(상시)
영어·불어성경	3월 첫째주(금·토) 개강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2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740-9708(http://songsin.catholic.ac.kr)

**세검정성당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관리인(계약직 2명) / 업무: 시설물 관리, 방호, 미화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문의: 02)3217-9595(내선 201·202)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월31일(일)까지 팩스(02)3217-9200), 이메일(khly88@naver.com), 우편·방문(우 03018,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38(신영동))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세탁근무자 각 0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월26일(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일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양충동)	010-8353-232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